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례 19:18)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구원 받지 못한 제자 가롯 유다

(마 10:2-4)

예수님 가장 가까워서 3년 동안 동거한 제자 가롯 유다, 그는 제자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 그의 이름

유다는 히브리어 '예후다'인데,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지라'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선호했던 이름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로 인해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의 대명사가 아니라 오히려 배반과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2. 그의 인물 됨

유다는 예수님과 12제자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회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는 신뢰성에 있어 전혀 의심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가롯 유다일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물욕이 강한 사람이었고,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3. 그의 배반

가롯 유다는 돈을 지나치게 사랑했습니다. 사실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면 그것은 반드시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가 주님을 은 30에 판 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그로 하여금 씻지 못할 큰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요 13:2).

4. 그의 죽음과 파멸

예수님을 팔아넘긴 뒤 유다는 곧 뉘우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후회일뿐 결코 회개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어찌 하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품에 안겼어야 했습니다. 유다는 후회했지만 결국 자살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목매어 죽었다고도 하고,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을 한 공동체 안에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불편하지만 사랑을 연습하고, 믿음을 연마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2제자를 공부하며 배웠던 영적인 레슨들을 심비에 새겨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Judas Iscariot, the Disciple who was Not Saved

(Matt. 10:2-4)

The disciple, Judas Iscariot who lived together with Jesus for three years was able to live a holy and wonderful life, but because he betrayed and sold Jesus, in the history of mankind, his name remained the most miserable one.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1. His name

Judas in Hebrew 'yehuda' has a very beautiful meaning 'God's will be praised'. That's why Jewish people liked and preferred the name of Judas much more than others. But because of Juhas who sold Jesus for thirty silver coins, the name Juhas was not of praise but rather became a name of betray and curse.

2. His Personality

When Judas lived his life in the community with Jesus and his twelve disciples, he was in charge of accounting. He was not suspected of unfaithfulness by anybody. That's why nobody anticipated that he would betray Jesus to the end. However, he was really materialistic and hypocritical person.

3. His betrayal

Judas Iscariot loved money too much. In fact money itself is not bad but if we love it, it is sure to be the root of evil. The fact that he sold Jesus for thirty silver coins was not an accidental action. His love of money made him commit a crime that could never wash away his sin.

Moreover, Judas Iscariot was not able to refuse the devil's temptation (John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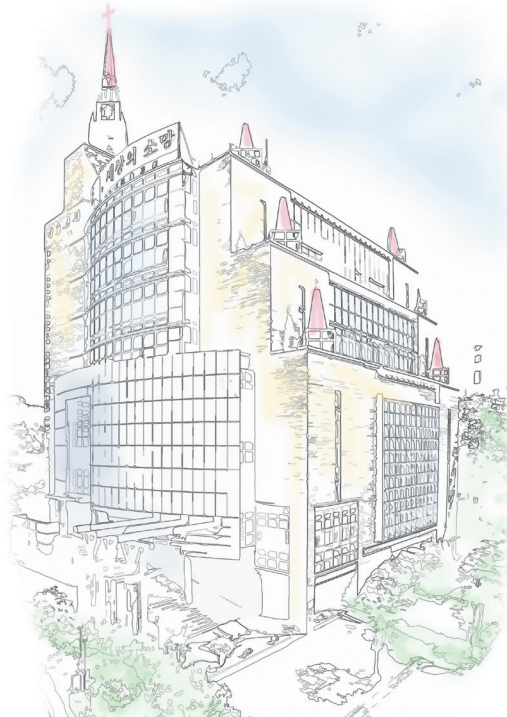
4. His death and destruction

Judas who sold and turned over Jesus, immediately repented and regretted what had done. But his regret was only regret but not a confession. If he really confessed his sins before Jesus, he should be enfolded in Jesus bosom. Though he confessed to the end, he died a miserable death of suicide. It is known that he died by hanging.

My beloved Christians,

Jesus bound diverse people who are improper into a community. Thus, though they were inconvenient, Jesus made them show their love to each other, train their faith, and be able to improve themselves.

By keeping all spiritual lessons you studied and learned the twelve disciples, so far, into your deep mind,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have a wonderful life by using of in the name of Jesus Christ.





VIP초대 새생명 축제

11월 15일(금) 오전 11시(연합다락방), 17일(주) I·II·III부 찬양예배 시

사명자대회 전도의 결실인 VIP초대 새생명축제를 닦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5,700여명의 VIP를 작성하여 기도 중에 있다.

사명자대회본부(부장: 오정수 장로)는 VIP초대 인도자와 VIP를 위한 소정의 선물과 그 날의 행사를 기획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사명자대회가 그동안은 주로 장년들 중심으로 열렸지만 올해부터는 민족과 세계

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도 자체적으로 적극 참여하기 위해 각 교회학교 별 자체적인 VIP초대 새생명축제를 준비 중이다.

이제 마음으로 작성하고 기도 중인 VIP새생명을 우리 교회에 인도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결신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전도에 힘쓰길 바란다.

제4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종강

4학기수료자 14명 / 10years round table members 7명

2013년 44학기목회자신학세미나가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종강하였다.이번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는 10 years round table members가 7명, 4학기 수료자가 14명이 배출되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한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해 많은 교회들이 갱신되는 은혜를 누리길 바란다.

<4학기 수료자>
김동건 김성찬 김승심 민준기 박성신 서수경 양창만 유순자 이변생 이석호 장일봉 정옥심 조광연 최도영
<10 years round table members>
김종찬 박중석 원재환 이은자 전인숙 조영식 최승의

2013 하반기 성경대학, 열린프로그램 수료식

수료자 - 총 259명 / 오늘 찬양예배 시

- 결혼예비학교 - 10명 -
강명석 차선혜 목정대 김은비1 선 언 김은진 성주익 박인애 한태선 윤혜선
- 서울음악교실 - 21명 -
김명숙3 김순진 김시찬 김주천 남선영 민의랑 박은아 박재준1 배성철 송명심 신석진 유선희 유시현 이미숙8 이승영 이영임 최의섭 최필선 홍경화 김정선 산혜식
- 말라기반 - 14명 -
강석조 김상태 김숙자1 김순진 김윤희7 박석현 박인규 1 손용문 유선희 육순자 이상호2 이은희7 이종창 정미자1
- 성경통독반 - 38명 -
강희자 권은주 김고은 김성미1 김성자1 김세미1 김숙영2 김영화4 김용자1 김유정4 김인숙2 김춘옥1 김현경3 김희진 남선영 문정원 민의랑 박계진 박현영 서해숙 유미숙2 윤정선 이로정 이명석 이영란2 이은진1 이은미2 이인보 이인숙4 이정남5 이혜숙 임현숙 장기숙 정영애 장호림 차애경 한은경 한효숙
- 빌립보서반 - 34명 -
권명희 김성례 김현욱 김영숙4 김정제 김찬진 박명애 박정애 송명심 송미애 송행희 신은경1 안혜경 여현주 오혜경 우승희 윤계진 윤정민 이로정 이영자8 이채봉 임미경 장호림 전광환 전정희 조윤정2 주화인 정호진2 채형숙 최금숙 최종희 한은영 황영희 홍정란
- 주부대학 - 23명 -
공명례 김경순4 김경아2 김경진1 김명애1 김수원 김완

- 수3 김윤희4 김인영2 김현경2 박시향 심미옥 우승희 이승영 이은미4 장민자 전숙향 전은성 정선경 조윤정2 조정옥 지서운 최준숙
- 교사양성반 - 11명 -
곽린애 김옥 김은성 김은연 남재은 노은아 송명원 안태길 정 환 허경화 홍성모
- 교구일꾼양성반 - 5명 -
김경희14 노애리 송명심 장미자 조성경
- 살롬길로대학 - 76명 -
공진문 곽숙 구연복 구전서 국산옥 권순덕 김경철 김금자1 김기순 김길자 김덕자 김동두 김복순5 김선자3 김수복 김연정 김영진 김자경1 김종자 나순금 나옥녀 문가자 민정이 박경산 박경희 박동희 박두영 박봉금 백명자1 소정부 송옥숙 송옥현 송옥혜 신종진 안찬의 안찬휘 양옥자 여옥기 유복달 유순임 윤만현 이경희2 이덕민 이부자 이순환 이은상2 이응남 이재순 이재순 이춘자 이필려 전배호 전운경 전인화 전랜자 정병무 정봉금 정빈도 정애신 정임숙 정정숙 조경순 조귀숙 채복순 최무순 최봉애 최영순 최정옥 최희희 최창화 최화봉 최화옥 홍선숙 황보추자 황성연 황일운
- 전도학교 - 27명 -
강윤욱 김명자3 김이규 김일병 김활라1 김현경3 김상태 김숙자1 김순진5 고정례 박이선 성부덕 신영자 안현남 이창기 이구근 오광수 유혜영2 유경희2 유미원 제영진 정미애 최유진 호창복 홍정숙 하영수 한연춘

2014년 섬김위원 봉사지원 신청

오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

2014년도 섬김위원으로 봉사를 원하는 성도는 봉사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늘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봉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또 다시 봉사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기존봉사자 중 부서를 옮기기를 원하는 성도와 내년 새로이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만 제출하면 된다.

2013년 피택자(장로, 집사, 권사) 당회고시 및 면접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당회 고시 (피택집사, 권사)	11/14(목) 오후 7:00-7:50	801호	피택자는 고시 후 501호 대기
	11/14(목) 오후 7:50-8:30	602 603 604 605 606 607 609 502,503	

2014 서리집사 교육 및 당회원 면접

구 분	일 시	장 소
교 육	11/15(금) 오후 7시 11/16(토) 오전 6시 15분 11/16(토) 오후 7시	501호
면 접	11/15(금) 오후 7시 45분 11/16(토) 오전 7시 11/16(토) 오후 7시 45분	1조 - 603호 2조 - 606호 대기 - 601호

살리맛이야기 CTS 방송

11월 14일(목) 오전 11시

11월 4일 살리맛의 2차수술(피부이식)이 7시간여가 걸려 끝났다. 살리맛 이야기는 다음주 목요일, CTS 기독교TV '7000마라톤 나눔의 기적'에 방송 된다. 방영시간은 본방 11월 14일 목요일 오전11시, 재방 15일 금요일 오전 1시, 오후 3시이다. 녹화는 방송국 홈페이지에서 항시 볼 수 있다.



사명자대회 - vip초대 새생명축제



바위는 아픔을 모르고 외딴 섬은 결코 울지 않는다고 어느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위가 아닙니다. 외딴 섬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게에 괴로워하고 남모르게 눈물도 흘립니다. 이런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어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깊은 가을, 추운 겨울이 오는 골목에서 따뜻한 사랑의 차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 목사 박노철 -

2013 사명자기도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영원히 죽었던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 하나뿐인 독생자,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처절한 고통의 절규를 외면하시고 철저히 내어버리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로도 살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극히 작은 사랑에도 빛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얻은 영생의 감격과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리라’는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끓는 심장을 허락하사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품게 하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온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리자 집사 (장년부, 7교구)

사명자대회 - 24시간 릴레이 기도

이어달리기의 추억



홍성도 집사 (12교구)

서울에서 태어나 한번도 도심을 떠나본 적이 없는 저에게 누군가 어릴적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초등학교 시절의 가을 운동회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가을 운동회에서도 백미. 그것은 바로 청팀과 백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어달리기 일명 ‘릴레이’였습니다. 5학년 가을 운동회 릴레이 마지막 주자로 나섰을 때의 전율과 떨림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 멀리서 바통을 전해주기 위해 죽기살기로 뛰어 오는 친구를 보면서 숨이 멎을 듯한 설레임과 꼭 이기고 말겠다는 승부욕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바통을 받은 후 쫓 먹던 힘까지 다해 뛰어 결승선에 먼저 도착했고 우리팀 주자들과 수백여명의 응원단과 선생님들은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서울교회에서도 매년 가을만 되면 초등학교 시절 가을운동회의 ‘릴레이’ 주자로 뛰

고 있습니다.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눈을 뜨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달린다는 것과 운동장 몇 바퀴를 도는 것이 아니라 장장 50일간 달린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주자 4명이 아니라 수 천명의 주자가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쯤되면 이어달리기 오래하기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입니다. 30년 전 그때처럼 바통을 이어 받을 시간이 되면 가슴이 쿵 쿵쿵 뛸 만큼 설레고 떨리는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비록 수천 명 중의 한 사람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구간을 대충 달릴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바통을 떨어뜨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릴레이’에 참가한 우리 서울 교회 성도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사명자 대회 50일간 연속기도회를 통해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은 30년 전 가을 운동회 때의 그들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바통을 주고 받으면서 여전히 ‘릴레이’를 하고 있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사명자대회 - 24시간 릴레이 기도

다음 세대 믿음의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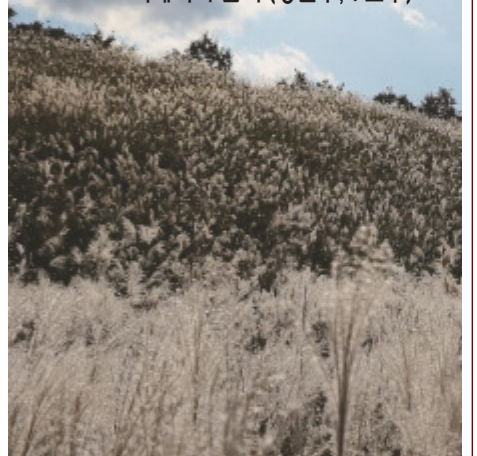
우일환 집사 (청년2부 회장)

저희 청년부는 사명자 대회를 맞아 청년 1,2,3부 연합으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원들 각자가 작성한 VIP 200여명과 주일 예배만 드리는 청년들, 청년부에 나오다 안나오는 청년들까지 더하여 총 약 500여명의 VIP를 작성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젊은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바로 이어서 2시부터 4시까지 각종 레크레이션과 더불어 청년부 워십팀 힐러의 무언극 공연, 온누리교회 FL 워십팀 공연, 자선음악회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양혜선 밴드의 공연, 새가족들과 기존 청년부원과의 반갑고 즐거운 나눔의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청년부에 아는 사람이 없어 나오기 어려하시다구요? 걱정마시고 행사 당일 1층 웨스트민스터홀로 오셔서 입구에 있는 안내위원들에게 처음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행사 끝까지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수 감사절 감사찬양

천지 창조



최광성 장로
(가브리엘찬양대 대장)

이 곡은 천지 만물의 창조 과정의 놀라움을 다양한 악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훌륭한 작품을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수개월 간 연습 한 가브리엘 찬양대원들과 이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지휘자 백경화 집사 그리고 피아노 오르가니스트 차주연 집사, 피아니스트 조현정 집사, 팀파니스트 유준일 집사, 솔리스트로 소프라노 정경임 선생, 테너 류충기 집사, 바리톤 고성진 집사가 함께

2013년 추수 감사절, 교회 창립 22주년을 맞아 가브리엘 찬양대가 F.J. Haydn의 대표적인 오라토리오 <천지 창조>를 준비하였습니다.

합니다.

지난 22년간 우리 서울교회를 세우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한 이 주일에 온 성도와 함께 이 감격을 귀한 찬양으로 함께 나눌 수 있음에 벅찬 감사와 기쁨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추수 감사절, 교회 창립 22주년 감사찬양 <천지 창조>를 찬양드릴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 특별찬양 ■

오늘 찬양예배는 추수감사절 감사찬양으로 가브리엘찬양대(대장:최광성 장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백경화 집사의 지휘로 하이든 작곡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창조 첫날부터 일곱째날까지를 찬양한다.

오르가니스트 차주연 집사, 피아니스트 조현정 집사, 팀파니스트 유준일 집사가 함께하며 독창자로 소프라노 정경임 성도, 테너 류충기 집사, 바리톤 고성진 집사가 찬양하며 7명의 관악앙상블팀이 협연한다.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1일(월) 하나원을 방문한다. 12일(화) 서울강남노회 목사 안수식에서 설교한다. 13일(수) 한국로잔위 정기모임, 미래한국 미디어 이사회에 참석한다.

■ 오정수 장로(9교구) : 세계CEO전문인선교회가 주최하는 '2013 자랑스런 전문인선교대상'에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1월16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갖는다.

■ 주간식당봉사 : 뱃뵤전도회(11.10) 마리아전도회(11.17)
■ 금주의 식사 : 한광마 집사 유성임 권사 가정
임광우 집사 최미희 권사 (자녀결혼 감사하며)

살롬경로대학

참 아름다운 경로대학



최규초 집사
(살롬경로대학 부관)

살롬 경로대학은 지난 10월 24일(목) '남이섬'에서 은혜중에 야외예배와 행사를 가졌습니다. 연로하신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갖는 행사라 부장 이하 저희 교사들은 노심초사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내 부모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배를 타고 건넌 남이섬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어르신들은 소풍 나온 양 너무 좋아 하셨습니다. 섬 숲속 잔디밭에 앉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라'고 창조와 섭리를 마음껏 찬양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장로님의 기도와 서명철 목사님의 시편1편 말씀을 듣고 주님 모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복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모두 아멘으로 합창 하였습니다. 예배 후 정성껏 준비해간 점심을 들고 편안한 휴식과 권사님의 하모니카 연주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가곡을 독창한 집사님과, 권사님의 아름다운

찬양과, 장로님들의 즐거운 발표시간도 가졌습니다. 잣나무와 자작나무가 어우러진 숲속 낙엽 길을 산책하며 청명한 가을햇살만큼이나 환한 미소로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책 할 때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교사들이 곁에서 손잡아드리고 다정다감하게 이야기 나누며 모시는 모습들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살롬 경로대학은 목요일 10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어르신과 함께 정성으로 드리는 1부 경건회와 2부 교양강좌 특강과 3부에는 각 교실에서 음악반, 생활체조반, 종이 접기반, 중국어 회화반, 성경 필사반의 진지한 학과별 수업으로 재적 106분이 배우며 사랑과 교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가 처음이신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이 다음 학기가 기다려진다고 하시니 저희 교사들은 책임감과 함께 더 정성으로 모시고자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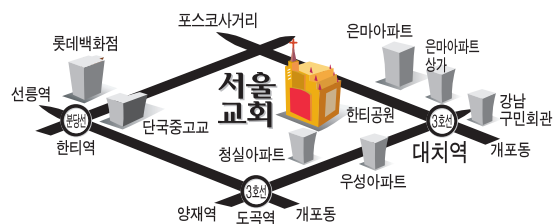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이번주에 있는 VIP초대 새생명축제에 1,000명 이상이 교회를 방문하고 300명 이상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도록
2. 11/18(월)~23일(토) 새벽 5시에 시작하는 특별 새벽기도회에 온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더 깊은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3. 장로/집사/권사 임직식과 교회창립 22주년 감사, 그리고 추수감사의 모든 일정들이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언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